

기부와 자원봉사에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누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누가 결합적으로 참여하는가?-*

강 철 희⁺

(연세대학교)

유 재 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소 현⁺⁺

(연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나눔행동이 선택적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나눔행동을 네 가지(비참여, 기부에만 참여, 자원봉사에만 참여,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로 세분화 한 후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동에의 영향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자료로는 서울복지패널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양한 나눔행동에의 참여여부 및 정기적 참여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의 나눔 경험과 종교활동은 현재의 나눔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여성), 소득수준(+),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은 기부와 관련된 나눔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상태의 경우 미취업은 자원봉사행동과, 취업은 기부행동과 보다 큰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역시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의 정기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질문인 '누가 각기 다른 형태의 나눔행동에 참여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의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선택적 나눔행동, 결합적 나눔행동, 나눔 정기성, 자원봉사, 기부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30-B00213)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물질 기부는 물론, 시간 기부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나눔(giving)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나눔은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노력을 복돋아 복지사회의 주축으로 활동하게끔 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끔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행한다. 뿐만 아니라, 나눔은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사회복지활동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 증대에 비중을 두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는 시점에서조차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지대하다.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까지도 정부에서는 나눔을 하나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며 일반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나눔 문화 확산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병행하여 실제 시민의 나눔 참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2010)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종교자원봉사 제외)은 23.9%로 2007년의 15.8%에 비해 8.1%가 증가하였다. 2009년 자원봉사자 1인당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도 61.9시간으로, 2007년의 52.1시간에 비해 약 9.8시간 증가하였다. 한편, 기부에 있어서도 2009년 기부자 1인당 순수 자선적 기부금액은 연평균 31.4만원으로, 2007년 19.9만원에 비해 약 11.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에 힘입어 2009년 시민에 의한 나눔의 총 규모는 약 8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아름다운재단 2008, 2010). 이는 2009년 정부예산의 3.1%를 차지하는 규모로, GDP의 0.79%에 달하며, 같은 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인 6.93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같은 나눔의 규모는 우리 사회에서 나눔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시민 개인의 나눔이 확산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양한 나눔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축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눔행동은 자원봉사나 기부 중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수행하거나,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를 결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나눔행동의 양태와 관련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하나의 나눔행동만을 선택해서 행하는 행동은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로 설명하고, 둘 모두를 행하는 결합적인 행동은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로 설명한다. 이렇듯 나눔의 다양한 행동 양상은 대체재 혹은 보완재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왔는데, 아직까지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이 선택적 나눔행동과 연관성을 갖는지 혹은 결합적 나눔행동과 연관성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나눔행동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기부 참여(강철희, 2003; 홍은진, 2005; 조선주·박태규, 2007), 기부 규모(김동배 외, 2009; 홍은진, 2005), 기부 노력(강철희, 2003; 강철희 외, 2009), 기부 정기성(강철희·주명관, 2007; 이상철 외, 2010), 향후 기부 의향(강철희 외, 2010; 김철수, 1997), 자원봉사 참여(강철희, 2003; 홍은진, 2006), 자원봉사 시간(강철희, 2003), 자원봉사 정기성(이상철 외, 2010), 향후 자원봉사 의향(김철수, 1997) 등과 같이 나눔의 개별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각각의 연

구들은 나눔행동을 대표하는 의미있는 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화된 현상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나눔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즉, 포괄적 시각에서 기부와 자원봉사는 나눔행동을 바라본다면, 어떤 이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두 가지 모두를 결합적으로 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기성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 본다면, 어떤 이들은 선택적 혹은 결합적 나눔행동을 비정기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택적 혹은 결합적 나눔행동을 정기적으로 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실제 나눔행동이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이제는 나눔행동을 포괄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연구가 행해질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선택적 나눔행동과 결합적 나눔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존의 나눔 연구에서 밝혀진 영향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주로 언급되어 온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심리사회적 요인을 비롯하여, 나눔행동을 이끄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이타적·친사회적 요인 등도 고려하면서 나눔행동의 구조를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이론에서는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성향이 높을수록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최은숙, 2012),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선택적 나눔행동과 결합적 나눔행동을 행하는 시민의 속성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나눔행동의 양상에 주목하면서, 나눔행동을 선택적 행동(기부에만 참여 혹은 자원봉사에만 참여)과 결합적 행동(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의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한 후, 각각의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기 다른 나눔행동 간의 영향요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자원봉사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한 후, 기부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집단과 두 가지 모두 참여하는 집단을 각각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과 두 가지 모두 참여하는 집단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정기성 여부를 고려하여 나눔행동의 정도를 세분화 한 후, 어떤 속성이 나눔의 정도가 반영된 각기 다른 형태의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설명요인의 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친사회적 태도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으로 영향요인을 구분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서울복지재단에서 구축한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시민의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나눔행동의 형태에 대해 실증적 이해를 구축하여 나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나눔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조직 및 자선조직 등의 비영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신의 조직 활동을 선택적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지지하는 인구집단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인식케 하여 효과적인 모금 및 자원봉사자 확보의 전략을 마련케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1) 나눔행동의 다양성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

나눔(giving)은 일반적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가 배제된 상태에서 타인의 이익을 지향하는 자발적이며 희생적인 도움행위로, 일반적으로 그 행위는 물질이나 시간, 노동 등을 나누는 형태이다. 즉, 나눔은 기부금 등의 물질적 나눔과 자원봉사 등과 같은 노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간적 나눔으로 구분될 수 있다(조선주, 2007). 이러한 자원봉사와 기부는 실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데, 자원봉사나 기부 중 한 가지 행동만이 선택적으로 행해지거나 혹은 두 가지 행동 모두가 결합된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행동 및 결합적 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원봉사와 기부가 선택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의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가지 행동이 병행되어 행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의 시각이다.

먼저, 자원봉사와 기부 간의 대체적 관계를 설명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들 수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자원봉사와 기부가 경쟁적 행동으로 간주된다. 즉, 두 가지 행동은 각기 다른 비용과 편익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 범위 내에서 개인은 상대적인 비용-편익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행동 하게 된다는 것이다(Andreoni, 1990). 따라서 나눔행동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를 동시에 선택해서 행하기보다는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원봉사의 기회비용이 높을 때에는 기부를 선택하고, 기부의 기회비용이 높을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대체제로 선택하게 된다. 이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부보다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보다는 현금 기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나눔행동의 형태를 설명해 왔는데, 공공재 모형(public good model)도 자원봉사와 기부 간의 대체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공재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순수한 이타주의자(pure altruists)이고, 나눔의 목적은 공공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으므로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은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에게 돌아올 편익과 상관없이 공공재의 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눔행동의 양상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Ducan, 1999).

그러나 실제로는 자원봉사와 기부가 동시에(simultaneously)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소비 모형(consumption model)은 두 가지 행동이 함께 일어나는 결합적 나눔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소비 모델에서는 개인은 순수하지 않은

이타주의자(impure altruists)이고 나눔은 'warm glow' 등과 같이 개인에게 돌아오는 편익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설명한다. 개인은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각기 다른 유형의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적인 'warm glow' 편익을 얻게 되고, 기부를 통해 공공재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갖게 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경력 개발 등의 또 다른 개인적 편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얻는 편익이 각기 다르므로, 자원봉사와 기부가 보완적 관계로 행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각기 다른 편익을 얻는다는 것이 검증되기도 하였다(Menchik & Weisbrod, 1987). 미국의 전국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기부와 자원봉사 간에는 밀접한 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yant et al., 2003), 국내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와 기부행동은 정적인 방향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나눔행동의 보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강철희·주명관, 2008).

이와 같이, 나눔행동 간의 관계는 크게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로서 자원봉사나 기부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시각과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로서 자원봉사나 기부가 결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의 공존은 결국 개인들의 나눔행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넘어, 이제는 선택적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 개인의 실제적 나눔행동에 초점을 두어 나눔의 다양한 행동 양상을 핵심적인 연구 현상으로 설정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나눔행동 발생에 관한 사회학 및 심리학적 논의

본 연구는 나눔의 선택적 행동 및 결합적 행동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행하고 있기에, 다양한 나눔행동에 대한 설명 요인을 정확하게 구축하여 실증적 분석의 기반으로 삼는 데에는 제한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나눔행동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정리는 나눔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에, 다음에서는 사회학적·심리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학적 시각에서 인간의 나눔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는 사회학습이론과 사회교환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Bandura(1977)에 의해 제창된 이론으로 인간이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어떻게 행동을 발달시켜 나가는지를 설명하며,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 사회학습이론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체험과 타인의 행동관찰(modeling)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은 부모 또는 주변 인물들의 기부나 봉사활동을 모방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나눔행동을 습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나눔의 선택적 행동 혹은 결합적 행동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성을 가지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학습이 나눔행동의 여부 및 정도 등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회교환이론의 경우, 사회는 지속적인 사회교환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개인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보상과 가치가 돌아오는지를 고려하여 행동양식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김주원, 2005). 즉, 비용과 이익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며, 개인 또는 집단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대신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나눔행동에 적용시킨다면 개인은 금전적인 기부나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만족감, 자부심, 보람 등의 가치를 얻기 때문에 나눔행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 역시 나눔의 선택적 행동 혹은 결합적 행동의 발생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성을 가지나, 기본적으로 개인이 인식하는 교환적 가치의 정도가 나눔행동의 여부 및 정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심리학적 시각에서 시민의 나눔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 이론으로는 자기확장이론을 들 수 있다(강철희, 2003). 기본적으로 자기확장이론은 개인의 성숙 과정에서 타자를 자신의 스키마(self schema)에 통합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확장이란 자신의 가치와 신념, 태도 등에 있어 타자 및 가족, 집단, 사회조직 등이 포함되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Belk, 1988), 이는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기여행동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 자기확장이론을 통해 나눔행동을 설명해 보면, 개인은 자아의 확장과 함께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확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눔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 역시 나눔의 선택적 행동 혹은 결합적 행동의 발생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성을 가지나, 기본적으로 개인이 인식하는 자아확장성의 정도가 나눔행동의 여부 및 정도 등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나눔행동 발생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 논의는 나눔행동 양상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론들에서는 개인은 타인의 나눔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혹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나눔행동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고, 나눔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과 보람 등의 반사적 이익에 의해 나눔행동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으며, 자아의 확장 과정에서 타인을 반영하면서 나눔행동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나눔행동의 구체적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새롭게 전개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눔행동 영향 요인에 대한 정리

위에서 정리해 본 이론을 바탕으로 나눔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구성해 본다면 크게는 친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증 연구들에서는 이 외에도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한 그 밖의 다양한 요인이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연관지우면서 실증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나눔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친사회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재구성하고, 이들 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된 이같은 요인은 나눔의 다양한 행동 유형

에도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에서는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나눔행동과 관련을 갖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 종교, 건강상태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나눔행동과의 관계에 있어 이들 변수가 일관된 방향성과 통계적 의미를 보이지는 않는다. 성별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성록, 2002; 김태홍 외, 2007). 기부 참여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Andreoni et al., 2003; 황창순, 2001),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으며(오단이, 2007), 남성이 더 활발하게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Chang, 2005).

연령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연령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대체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참여율이 낮아지다가 중년이후 다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Menchik & Weisbrod, 1987). 한편, 연령과 기부 간에는 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Bekkers & Schuyt, 2005), 이와는 달리 연령과 기부와의 관계가 비선형적임을 밝힌 연구도 있으며(Danko & Stanley, 1986),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는 연구(강철희, 2003)도 있다.

소득의 경우, 임금수준과 자원봉사 참여 간 부적 관계(Freeman, 1997)를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 정적 관계를 밝힌 연구도 있다(Menchik & Weisbrod, 1987). 한편, 기부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수준이 기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Schervish & Havens, 1995), 소득 대비 기부금의 비율은 U자형 곡선을 나타낸다는 연구도 있다(Jones & Posnett, 1991).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태홍 외, 2007; 조휘일, 1991). 또한 교육수준은 기부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kkers, 2004; Wilhelm et al., 2006), 기부의 정기성과도 정적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수영, 2005).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교육수준과 기부행동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Bryant et al., 2003).

결혼 상태의 경우, 기혼인 경우가 미혼에 비하여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으며(Sundeen, 1990), 기부 참여 가능성도 높고(Wilhelm et al., 2006), 기부규모도 더 큰 것으로 보고된다(Drollinger & Johnson, 1995). 그러나 이와 달리, 결혼 상태와 기부행동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도 있다(Brooks, 2002).

한편, 취업상태와 관련하여서는 유급업무시간과 자원봉사 시간 간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Markham & Bonjean, 1996). 한편, 기부의 경우, 대체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미취업 상태의 사람들보다 기부 참여가 활발하고, 기부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vens et al., 2007).

종교의 경우,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고(홍은진, 2006), 종교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휘일, 1991). 기부와 관련하여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기부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수진, 2000; Bekkers, 2003).

건강상태의 경우, 나눔행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많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나눔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ekkers, 2006). 또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나눔행동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Thoits & Hewit, 2001).

(2) 친사회적 태도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 경험, 인식 등도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이전의 자원봉사나 기부 참여와 같은 나눔 경험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 모임 및 단체에 대한 참여,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등도 나눔행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나 기부는 친사회적 행동에 속하나, 이는 친사회적 가치 및 태도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사회 모임 및 단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도 역시 친사회적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친사회적 태도(prosocial attitude)의 일종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인식, 타인의 복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및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등도 적극적인 사회 참여, 타인에 대한 관심 및 원조, 사회 개선 의지 등을 포괄하는 친사회적 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Staub,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눔행동의 영향 요인으로 논의되는 나눔 경험, 사회참여, 사회 및 복지에 대한 태도 등이 친사회적인 성향과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다음에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친사회적 태도 요인 중 하나인 과거의 나눔 경험은 현재의 나눔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전의 자원봉사 경험은 현재의 자원봉사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Oesterle et al., 2004), 기부활동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영석, 2000). 또한 부모의 자선적 기부 및 본인의 이전의 기부 참여가 현재의 자선적 기부 활동 수행에 영향력을 갖고(강철희, 2002), 더 나아가 개인의 기부경험은 개인의 지속된 기부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된다(장은영, 2009).

사회 참여 수준 또한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와 기부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Brooks, 20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ristol(1990)의 졸업생 기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창회 활동에의 참여는 관련된 기부행동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서 시민 개인이 복지 등의 사회적 제도나 사회전반에 대해 갖는 태도도 나눔행동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 이념, 태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며(조휘일, 1991), 사회의 공정성, 정의에 대한 인식도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된다(Rose & Dr. Vitartas, 2007). 또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정도와 자원봉사활동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Hustinx et al., 2010), 정부에 대한 기대와 확신 정도도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rooks & Lewis, 2001). 한편, 기부와 관련하여서도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의식, 이념, 태도 등이 기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조휘일,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사회적 태도 요인은 나눔행동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요인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

하여, 과거의 나눔 경험, 사회 참여, 사회 전반에 대한 태도 및 복지에 대한 태도 등의 나눔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 신뢰나 행복감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도 나눔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나눔행동에 대한 신뢰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Goss, 1999). 기부 대상기관에 대한 태도 역시 기관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이것은 헌신적인 기부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철희, 2002).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의 영향력을 살펴본 Bekkers(2003)의 연구에서도 신뢰가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강철희(2007)의 연구에서는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 간의 관계가 쌍방향적인(bilateral) 것임을 밝히면서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는 선순환적 관계임을 보고한다.

한편, 행복감 역시 나눔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일반적으로 행복감(happiness)은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보편적 정의에 맞춰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행복감과 나눔행동 등의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lson & Musick, 1999). Bekkers(2004)의 연구에서도 행복하고 외향적이며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친사회적 태도 요인을 비롯하여 심리·사회적 요인 등은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선택적 나눔행동 및 결합적 나눔행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나눔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3.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나눔행동 양상에 주목하고, 각기 다른 나눔행동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질문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나눔행동에 있어서의 참여 강도에 따른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의 집단을 정기적·비정기적인 참여를 포괄하는 일반적 나눔 참여 집단과 정기적 나눔 참여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기적·정기적 참여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나눔 참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 ① 비참여행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변수가 선택적 나눔행동(자원봉사에만 참여 및 기부에만 참여)의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 ② 비참여행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변수가 결합적 나눔행동(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의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 ③ 참여행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변수가 각기 다른 나눔행동(자원봉사만 참여 vs 기부만 참여, 자원봉사만 참여 vs 둘 다 참여, 기부만 참여 vs 둘 다 참여)의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둘째, 정기적인 나눔 참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 ① 비참여행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변수가 선택적 나눔행동(자원봉사에만 참여 및 기부에만 참여)의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 ② 비참여행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변수가 결합적 나눔행동(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의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 ③ 참여행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변수가 각기 다른 나눔행동(자원봉사만 참여 vs 기부만 참여, 자원봉사만 참여 vs 둘 다 참여, 기부만 참여 vs 둘 다 참여)의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구축한 서울시 복지패널 1차 본조사(2008)와 2차 본조사(2010) 자료를 활용한다.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표본은 층화 2단 집락추출(stratified two-stag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추출되었는데, 1차 본조사의 자료는 3,655가구의 7,761명, 2차 본조사의 자료는 3,304가구의 7,021명의 조사응답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에 결측치를 가진 경우를 제외한 5,73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속성에 따른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주요 변수의 조사 단위 시점을 고려하였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시간적 선행관계가 뒤바뀌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친사회적 태도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1차 본조사의 응답을 활용하고, 종속변수로 설정한 나눔행동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2차 본조사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나눔행동 유형이다. 이는 정기성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정기적·비정기적 참여를 포함한 일반적 참여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적 참여 여부이다. 이

를 기준으로 나눔행동 유형을 세분화하면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비참여, 자원봉사에만 참여, 기부에만 참여,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나눔행동의 참여 유형은 서울시 복지패널 2차 조사에 해당하는 기간인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동안의 나눔행동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눔 참여의 영향 요인으로 제시된 인구사회학적 요인, 친사회적 태도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에 속한 변수의 내용과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 종교, 건강상태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 종교는 더미 변수화하여 측정하였고, 가구 월소득은 자연로그값을 활용하였으며,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활용하였다.

둘째, 친사회적 태도 요인으로는 나눔 경험, 사회참여, 사회에 대한 태도, 복지에 대한 태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나눔 경험은 일반적 참여를 기준으로 서울시복지패널 1차 조사 당시의 자원봉사 또는 기부 경험에 대한 값을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비참여', '자원봉사에만 참여', '기부에만 참여',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로 분류하여 활용하였다. 사회참여는 동창회, 취미활동 모임, 향우회, 종친회, 종교 활동, 시민단체, 자선단체, 학술관련 단체, 거주지역 모임, 정치관련 단체, 직업관련 단체 등 11개의 각종 모임 및 단체에 대한 참여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사회에 대한 태도는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 공정성, 사회개선 노력의 정도, 사회 개선의 어려움 정도, 사회 개선 노력 참여 의향, 사회 발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 정도 등으로 구성된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복지에 대한 태도는 복지확대에 대한 견해,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분배와 성장에 대한 견해,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18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셋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신뢰와 행복감 변수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신뢰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자선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노동조합, 정당, 이익단체 및 경제인 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 언론기관 등 16개 영역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행복감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10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에 활용한 변수의 내용과 측정 방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내용과 측정 방법

구분	변수내용	설명
종속 변수	나눔행동 일반적 나눔 참여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음=0,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함=1, 자원봉사만 참여함=2, 기부만 참여함=3

	정기적 나눔 참여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음=0,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함=1, 자원봉사만 정기적으로 참여함=2, 기부만 정기적으로 참여함=3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만 연령	
	소득	가구 월소득의 로그값	
	교육수준	고졸 이하=0, 대재 이상=1	
	결혼상태	비혼=0, 유배우=1	
	취업상태	미취업자=0, 취업자=1	
	종교	무교=0, 종교 있음=1	
	건강상태	5점 척도 (매우 건강하지 못함=1, 매우 건강함=5)	
독립 변수	과거 나눔 경험	(2008년 기준)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음=0,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함=1, 자원봉사만 참여함=2, 기부만 참여함=3	
		친사회적 태도 요인	사회참여
		사회에 대한 태도	사회 개선 및 발전에 대한 긍정적 태도 6개 문항의 평균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복지에 대한 태도	복지 확대 및 공적 책임에 대한 태도 18개 문항의 평균 5점 척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매우 동의한다=5)
	심리 사회적 요인	신뢰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16개 문항의 평균 5점 척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매우 신뢰한다=5)
		행복감	10점 척도 (매우 불행하다=1, 매우 행복하다=10)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나눔행동 유형에 따른 참여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친사회적 태도, 심리·사회적 특성 등 독립변수들에 대한 특성 및 분포와 더불어 종속변수인 나눔행동 유형에 따른 참여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나눔행동과 위에서 제시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친사회적 태도, 심리·사회적 특성 등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의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친사회적 태도 요인, 심라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

본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각 요인의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자 5,733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여성이 55.6%로 남성에 비해 다소 더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8.71세였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5.94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가 56.7%로 '대학재학 이상'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의 경우에는 '비혼(미혼, 이혼, 사별, 비해당)'이 34.0%, '기혼'은 66.0%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의 경우, 비취업자라는 응답이 57.6%로 취업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52.5%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값은 3.43점으로, 응답자들은 스스로 다소 건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5,733명)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546	44.4
	여성	3,187	55.6
연령	19세 이하	307	5.4
	20대	586	10.2
	30대	1,086	18.9
	40대	1,111	19.4
	50대	852	14.9
	60대 이상	1,791	31.2
	평균	48.71	표준편차 17.94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69	16.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86	20.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29	17.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31	14.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19	10.8
	500만원 이상	1,099	19.2
평균	305.94	표준편차 259.07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53	56.7
	대학재학 이상	2,480	43.3
결혼상태	비혼(미혼, 이혼, 사별, 비해당)	1,951	34.0
	기혼	3,782	66.0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취업상태	취업	2,431	42.4	
	비취업	3,302	57.6	
종교	종교 없음	2,721	47.5	
	종교 있음	3,012	52.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건강상태	3.43	1.10	1	5

한편, 친사회적 태도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과거의 나눔 경험을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8%로 매우 높았으며, 자원봉사만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5.8%, 기부만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15.0%,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의 평균값은 1.64로, 5점 척도를 통해 측정된 점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자의 평균적인 사회 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은 3.01로, 사회의 미래, 사회 개선, 사회 발전 등에 대해 보통 수준의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에 대한 태도의 경우 평균값은 3.33으로, 복지 확대 및 시민의 삶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친사회적 태도 요인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N=5,733)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과거 나눔경험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음	4,172	72.8	
	자원봉사만 참여함	335	5.8	
	기부만 참여함	859	15.0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함	367	6.4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참여	1.64	0.61	1	5
사회에 대한 태도	3.01	0.45	1	5
복지에 대한 태도	3.33	0.40	1.67	5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일반화된 사회신뢰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은 평균 2.96으로, 보통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점 척도로 측정된 행복감의 경우, 평균 6.34점으로 응답자들은 보통 수준 이상의 행복감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심리·사회적 요인의 기술분석 결과(N=5,733)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	2.96	0.58	1	5
행복감	6.34	1.78	1	10

(2) 나눔행동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나눔행동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였는데, 하나는 정기적·비정기적 참여를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참여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나눔의 강도가 높은 정기적인 참여 여부이다.

먼저 나눔에 대한 일반적 참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나눔행동 유형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4,566명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하였다. 기부에만 참여한 경우는 627명(10.9%), 자원봉사에만 참여한 경우는 259명(4.5%), 자원봉사와 기부에 모두 참여한 경우는 281명(4.9%)으로 나타났다.

정기적 참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나눔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5,276명으로 전체의 92.0%를 차지하였다. 기부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266명(4.6%), 자원봉사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126명(2.2%),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65명(1.1%)으로, 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헌신하는 비율은 전체 시민 중 약 1%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나눔행동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N=5,733)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일반적 참여 기준에서의 나눔행동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음	4,566	79.6
	자원봉사만 참여함	259	4.5
	기부만 참여함	627	10.9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함	281	4.9
정기적 참여 기준에서의 나눔행동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5,276	92.0
	자원봉사만 정기적으로 참여함	126	2.2
	기부만 정기적으로 참여함	266	4.6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함	65	1.1

2) 나눔행동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일반적(정기적·비정기적) 참여 기준에 의한 나눔행동에 대한 분석

정기적·비정기적인 나눔 참여 모두를 포괄하는 일반적 참여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6〉 일반적 참여 기준에 의한 나눔행동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ref. 모두 비참여			ref. 자원봉사만 참여		ref. 기부만 참여
		자원봉사만 참여	기부만 참여	기부-봉사 모두 참여	기부만 참여	기부-봉사 모두 참여	기부-봉사 모두 참여
		B	B	B	B	B	B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040	.294**	.336*	.253	.296	.043
	연령	-.018**	-.004	-.005	.014*	.012	-.001
	소득	.159	.256***	.360**	.098	.201	.104
	교육수준	-.402**	.559***	.330*	.962***	.733***	-.229
	결혼상태	-.216	.386**	.293	.602**	.509*	-.093
	취업상태	-.647***	.317**	.017	.964***	.663**	-.300
	종교	.453**	.367***	.586***	-.086	.133	.219
	건강상태	.107	-.081	-.020	-.188*	-.126	.062
	과거 나눔 경험						
친사회적 태도 요인	자원봉사	1.888***	.686**	1.800***	-1.202***	-.088	1.114***
	기부	.698**	1.613***	1.426***	.916***	.728**	-.187
	둘 다	1.786***	1.339***	3.213***	-.447	1.427***	1.874***
	사회참여	.037	.100	.336**	.063	.299	.236
	사회에 대한 태도	.032	-.025	.313*	-.057	.281	.338*
	복지에 대한 태도	-.097	.195	-.101	.292	-.004	-.297
심라사회적 요인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049	.162	.194	.210	.243	.032
	행복감	-.022	.045	.040	.067	.062	-.005

1) * p<.05, ** p<.01, *** p<.001

2) 표준오차 값은 생략함

① 선택적 나눔행동의 영향 요인 (준거집단: 모두 비참여)

먼저,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인구집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5%를 차지하는데, 이와 같은 선택적인 자원봉사 참여 행동에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교(+), 모든 유형의 나눔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부에만 참여하는 인구집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11%를 차지하는데, 이와 같은 선택적 기부행동에 있어서는 성별(여성), 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유배우자), 취업상태(취업), 종교(+), 모든 유형의 나눔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결합적 나눔행동의 영향 요인 (준거집단: 모두 비참여)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에 참여하는 결합적 나눔행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전체 시민 중 약 5%로서, 이들의 행동에는 성별(여성), 소득(+), 교육수준(+), 종교(+), 모든 유형의 나눔 경험(+), 사회참여(+), 사회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나눔행동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비교 (준거집단: 자원봉사만 참여와 기부만 참여)

나눔행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러한 행동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자원봉사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과 두 가

지 모두 참여하는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부에만 참여하는 집단은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유배우자), 취업상태(취업), 건강상태(-), 자원봉사경험(-), 기부경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집단과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는 집단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모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수준(+), 결혼상태(유배우자), 취업상태(취업), 기부경험(+),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부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집단과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는 집단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모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자원봉사경험(+))과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했던 경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기적 참여 기준에 의한 나눔행동에 대한 분석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 시민의 8%로, 이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7>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7> 정기적 참여 기준에 의한 나눔행동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ref. 모두 비참여			ref. 자원봉사만 참여		ref. 기부만 참여
		자원봉사 만 참여	기부만 참여	기부봉 사 모두 참여	기부만 참여	기부봉 사 모두 참여	기부봉 사 모두 참여
		B	B	B	B	B	B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204	.432**	.080	.227	-.124	-.352
	연령	.005	-.004	.010	-.009	.005	.014
	소득	.125	.369**	.730**	.245	.606*	.361
	교육수준	-.038	.505**	.168	.542*	.206	-.337
	결혼상태	.112	.033	.741	-.079	.628	.707
	취업상태	-.491*	.533***	.282	1.024***	.773*	-.251
	종교	.179	.709***	.772*	.530*	.594	.064
	건강상태	-.016	-.115	-.036	-.099	-.020	.079
	과거 나눔 경험	자원봉사	1.936***	.931**	2.075***	-1.006*	.138
기부		.805**	1.847***	1.009*	1.042**	.204	-.838
둘 다		2.434***	1.796***	3.509***	-.638*	1.075*	1.713***
사회참여		.066	-.089	-.190	-.156	-.256	-.100
사회에 대한 태도		.246	.130	.066	-.116	-.180	-.063
복지에 대한 태도		-.048	.424*	.339	.471	.387	-.084
심리·사회 적 요인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244	-.148	-.321	.096	-.077	-.173
	행복감	.002	.133**	.246**	.131	.244*	.113

1) * p<.05, ** p<.01, *** p<.001

2) 표준오차 값은 생략함

① 선택적 나눔행동의 영향요인 (준거집단: 모두 비참여)

자원봉사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전체의 약 2%로, 이러한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취업상태(비취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와 동일한데, 기본적으로는 비취업자의 경우가 자원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친사회적 태도 요인 중에서는 과거의 나눔 경험(+)이 자원봉사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부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전체의 약 5%로, 이러한 행동에는 성별(여성), 소득(+), 교육수준(+), 취업상태(취업), 종교(+), 모든 유형의 나눔 경험(+), 복지에 대한 태도(+), 행복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공적 책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나눔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보다는 기부활동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정부 지출 큰 경우, 기부와 같은 사적 영역의 활동은 그만큼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crowd-out effect hypothesis)이 있고 (Roberts, 1984; Warr, 1982), 그 반대로 이 둘의 관계는 각각의 파이를 키우는 형태로 전개된다는 설명, 즉 공적인 부분의 책임이 증가되는 만큼 사적 영역에서의 개입도 증가된다는 설명(crowd-in effect hypothesis)도 있는데(Schiff, 1990), 위의 결과는 후자의 이론에 부합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결합적 나눔행동의 영향요인 (준거집단: 모두 비참여)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약 1%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소득(+), 종교(+), 모든 형태의 나눔 경험(+), 주관적 행복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행복감이 높을수록 나눔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보다는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나눔행동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비교 (준거집단: 자원봉사만 참여와 기부만 참여)

나눔행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러한 행동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자원봉사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과 두 가지 모두 참여하는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부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자원봉사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 취업상태(취업), 종교(+), 자원봉사경험(-), 기부경험(+), 자원봉사 및 기부 모두 참여한 경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과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소득(+), 취업상태(취업), 자원봉사 및 기부 모두 참여한 경험(+), 행복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과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한 경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에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기부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나눔행동 유형별 영향 요인에 대한 종합적 정리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요인 별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여성)은 나눔행동 비참여와 비교했을 때 기부와 관련된 행동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의 영향력과 유사한 패턴이 소득(+)과 교육수준(+)에서도 나타났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집단과 기부와 관련된 행동에 참여하는 집단의 비교에서도 소득과 교육수준, 결혼상태(기혼)는 기부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취업상태는 자원봉사 및 기부와 관련해서 상반된 영향력을 뚜렷이 나타낸다. 즉 미취업상태일 때 자원봉사와 높은 관련성을 갖고, 취업상태일 때 기부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기부에만 참여하는 집단, 둘 다 참여하는 집단에 대한 비교에서도 일관적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비취업자의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시간적 여유가 적은 취업자의 경우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 자원봉사나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나눔행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과 나눔은 불가분의 관계임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친사회적 태도 요인 중 과거의 나눔 경험(+)은 나눔행동 비참여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교했을 때 모든 유형의 나눔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형태든 과거의 나눔 경험은 그 유형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현재의 모든 유형의 나눔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집단과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하는 집단의 비교에서는 과거의 자원봉사 경험은 현재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행동에, 과거의 기부 경험은 현재의 기부와 관련된 행동에, 과거 자원봉사와 기부 둘 다 참여한 경험은 두 가지 나눔행동을 현재 함께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어떤 형태이든 나눔 활동은 지속성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친사회적 태도 요인 중 사회에 대한 태도는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결합적 나눔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요인 중 신뢰는 나눔행동의 어떤 유형에도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복감(+)은 나눔행동 비참여와 비교할 때 정기적인 기부 참여와 정기적인 자원봉사 및 기부 둘 모두에의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행복감(+)은 자원봉사와 기부 둘 모두에 정기적

으로 참여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부와 관련된 행동에 보다 적극적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향후 행복감이 나눔행동에 갖는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8〉 나눔행동 참여 요인에 대한 종합적 정리

변수	ref. 모두 비참여						ref. 자원봉사만 참여				ref. 기부만 참여	
	자원봉사만		기부만		기부·봉사 모두		기부만		기부·봉사 모두		기부·봉사 모두	
	참여	정기성	참여	정기성	참여	정기성	참여	정기성	참여	정기성	참여	정기성
성별			(+)**	(+)**	(+)*							
연령	(-)**						(+)*					
인구 소득			(+)**	(+)**	(+)**	(+)**					(+)*	
사회학 교육수준	(-)**		(+)**	(+)**	(+)*		(+)**	(+)*	(+)**			
적 결혼상태			(+)**				(+)**		(+)*			
요인 취업상태	(-)**	(-)*	(+)**	(+)**			(+)**	(+)**	(+)**	(+)*		
종교	(+)**		(+)**	(+)**	(+)**	(+)*		(+)*				
건강상태							(-)*					
과거 나눔 경험												
자원봉사	(+)**	(+)**	(+)**	(+)**	(+)**	(+)**	(-)**	(-)*				(+)**
친사회 기부	(+)**	(+)**	(+)**	(+)**	(+)**	(+)*	(+)**	(+)**	(+)**			
적 태도 둘 다	(+)**	(+)**	(+)**	(+)**	(+)**	(+)**		(-)*	(+)**	(+)*	(+)**	(+)**
요인 사회참여					(+)**							
사회에 대한 태도					(+)*							(+)*
복지에 대한 태도				(+)*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행복감			(+)**		(+)**					(+)*		

* p<.05, ** p<.01, *** p<.001

5. 결론 및 논의

우리 사회에서 시민 개인의 나눔은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그동안 나눔과 관련된 지식 체계화의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나눔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단편적으로 행해져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나눔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나눔행동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나눔행동 관련 연구들은 자원봉사와 기부 중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온 경향을 갖기에, 나눔행동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해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나눔행동의 실제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형태를 선택적 혹은 결합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나눔 참여의 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 참여(정기적·비정기적)와 정기적 참여를 구분한 후,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참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 동안 자원봉사, 기부, 또는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등과 같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눔행동에 참여한 시민의 비율은 약 20.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기적 참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 동안 자원봉사, 기부, 또는 두 가지 모두 등의 형태로 정기적인 나눔을 수행한 시민의 비율은 약 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참여율은 아름다운 재단의 Giving Korea 보고 등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에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이긴 하나, 본 연구는 패널 자료가 갖는 신뢰성에 입각하여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시민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 나눔행동에 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과거 나눔에 대한 경험이 현재의 나눔행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즉, 나눔행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집단과 어떤 형태로든 나눔행동에 참여하는 집단을 구분해내는 핵심적 변수는 바로 과거의 나눔 경험임을 보여준다. 즉 과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행동에, 기부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부와 관련된 행동에, 둘 다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결합적인 나눔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학이론에서 제시하듯이 나눔은 학습에 의해 확장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나눔에 대한 교육 혹은 다양한 형태로 나눔의 현장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눔행동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본 연구는 종교 활동과 나눔행동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기부 혹은 자원봉사와 같은 선택적 나눔행동을 수행하는 집단 뿐 아니라, 결합적 나눔행동을 수행하는 집단을 나눔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과 구분해 내는 핵심적 변수의 하나가 바로 종교 활동 여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 활동이 어떠한 형태의 나눔행동에 있어서든 중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시민의 나눔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여성),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상태(+), 기부와 관련된 행동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취업상태의 경우, 미취업 상태는 자원봉사 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갖고, 취업상태는 기부와 관련된 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이 나눔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지식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조직 및 자선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들이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모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 안에서 나눔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시민들, 즉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구분해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심리·사회적 요인의 하나인 행복감이라는 것을 밝힌다. 즉 개인이 갖는 주관적 행복감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나눔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서 행복감이 모범적 나눔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혹은 모범적 나눔행동이 행복감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나눔행동의 다양한 형태를 이전의 연구에 근거해서 다양하게 구분하고 다양한 나눔 유형에 대한 영향 요인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이는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나눔행동의 다양한 속성과 그러한 행동의 영향 요인들을 밝혀내는데 기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나눔행동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후속 연구의 길잡이로서 기능하며, 새로운 나눔행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다양한 나눔행동에 대한 참여 요인을 밝힘으로써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를 주요 자원으로 삼는 비영리기관에서 나눔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개발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변수들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간과했을 수 있는 다른 외생변수들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나눔의 다양성에 관련한 보다 세분화된 지식이 축적된다면 사회복지조직을 비롯한 많은 비영리기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철희. 2002. “자선적 기부예의 참여 및 기부노력에 대한 탐색적 분석”. Giving Korea. 아름다운재단.
- _____.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 _____. 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3): 5-32.
- 강철희·고언정·정혜영. 2009. “기부노력에 대한 기부동기와 기부대상 인지매체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215-254
- 강철희·김유나·조주희. 2010. “기부충성도를 지닌 인구집단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205-235.
- 강철희·주명관. 2007. “기부대상영역예의 기부참여행동과 기부정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2): 89-137.
- _____.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1): 1-38.
- 김동배·이주연·김성웅. 2009. “조직체에 대한 신뢰성이 기부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317-337.

- 김주원. 2005. “대학기부자와 자선기부자의 기부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철수. 1997.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와 기대효과가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참여의향 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4(1): 239-265.
- 김태홍·김난주·권태희. 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평가”. 『한국인구학』 30(3): 83-105.
- 아름다운재단. 2010. 『Giving Korea 2010』
- 아름다운재단. 2008. 『Giving Korea 2008』
- 오단이. 2007. “금전적 기부자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브랜드 가치를 적용한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수진. 2000. “기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철·홍환·박언하. 2010. “정기적 기부 및 자원봉사 제고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117-149.
- 이성록. 2002.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사회복지실천』 1권. pp.215-275.
- 장은영. 2009. “개인기부자의 기부의향 결정 변인에 관한 연구: 연령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영. 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관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석. 2000. “자선 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 개별 가구의 기부행위에 대한 실증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주. 2007. “성별 기부특성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1): 165-203.
- 조선주·박태규. 2007. “정부보조금의 민간(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회복지관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12(2): 65-88.
- 조휘일. 1991.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18호. pp.117-150.
- _____. 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 최은숙. 2012.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 수준과 기부, 자원봉사의 관계-공적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은진. 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123-152.
- _____. 2006. “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5(1): 33-71.
- 황창순. 2001. “개인기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0년 기부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 to public goods - a theory of warm glow giving”. *Economic Journal*, 100: 464-477.
- Andreoni, J., E. Brown, and I. Rischall. 2003. “Charitable giving by married couples: Who decides and why does it matte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 111-133.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kkers, R. 2003. “Trust, Accreditation, and Philanthropy in the Netherland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4): 596-615.

- _____.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Ph.D dissertation, Utrecht Univ.
- _____. 2006. "Traditional and health-related philanthropy: The role of resources and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9(4): 349-366.
- Bekkers, R. and T. Schuyt. 2005. "And Who Is Your Neighbor? Explaining the Effect of Religion on Charitable Giving and Volunteering". Department of Philanthropic Studies,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 Belk, R. 1988. "Possessions and the extended self".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5.
- Bristol, R. B., Jr. 1990. "The Life Cycle of Alumni Donations". *Review of Higher Education*, v13 n4 p503-18 Sum 1990.
- Brooks, A. C. 2002. "Welfare Receipt and Private Charity". *Public Budgeting & Finance*, 22(3): 101-114.
- _____. 2005. "Does social capital make you generous?". *Social Science Quarterly*, 86: 1-15.
- Brooks A. C. and G. B. Lewis. 2001. "Giving, Volunteering, and Mistrusting Government".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0(4): 765 - 769.
- Bryant, W. K., H. J. Slaughter, H. Kang, and A. Tax. 2003. "Participating in Philanthropic Activities: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 43-73.
- Chang, W. C. 2005. "Determinants of donations: Empirical evidence from Taiwan". *Developing Economies*, 43: 217-234.
- Danko, W. D. and T. J. Stanley. 1986. "Identifying and Reaching the Donation Prone Individual: A Nationwide Assessment". *Journal of Professional Services Marketing*, 2 (Fall/Winter): 117-122.
- Drollinger, T. L. and D. P. Johnson. 1995. "Life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Washington D.C.
-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213-42.
- Freeman, R. B. 1997. "Working for Nothi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140-166.
- Goss, K. A. 1999. "Volunteering and the Long Civic Gener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4): 378-415.
- Hustinx, L., R. A. Cnaan, and F. Handy. 2010. "Navigating Theories of Volunteering: A Hybrid Map for a Complex Phenomen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40(4): 410-434.
- Markham, W. and C. Bonjean. 1996. "Employment status and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higher status women volunteers, 1975 and 1992. A case study". *Sex Roles*, 34(9-10): 695-716.
- Menchik, P. and B. Weisbrod. 1987. "Volunteer Labor Sup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2: 159-183.
- Oesterle, S., M. Johnson, and J. T. Mortimer. 2004. "Volunteerism during the Transition Adulthood: A Life Course Perspective". *Social Forces*, 82(3), 1123-1149.
- Robert, R. 1984. "Positive model of private charity and public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136-148.

- Rose, S. and Dr. P. Vitartas. 2007. "An Investigation into Factors Affecting Volunteer Behaviour?" *CEDAR Research Report* No. 9, February.
- Schervish, P. G. and J. J. Havens. 1995. "Explaining the curve in the U-shaped curve".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6(2): 202-225.
- Schiff, J. 1990. *Charitable giving and government policy: An economic analysis*. Westport, CT: Greenwood.
- Staub, E. 1990. "Moral Exclusion, Personal Goal Theory, and Extreme Destructive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46(1): 47-64.
- Sundeen, R. 1990. "Family Life Course Status and Volunteer Behavior: Implications for the Single Parent". *Sociological Perspectives*, 33(4): 483-500.
- Thoits P. A. and L. N. Hewitt.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2): 115-131.
- Warr, P. 1982. "Pareto optimal redistribution and private char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 131-138.
- Wilhelm, M. O., E. Brown, P. M. Rooney, and R. S. Steinberg. 200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erosity*. IUPUI.
- Wilson, J. and M. Musick. 1999.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Volunteer".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2(4): 141-168.

An Empirical Exploration on Selective & Combined Giving -Comparison of General Participation and Intensive Participation-

Kang, Chul-Hee

(Yonsei University)

Yu, Jae-Yoon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ark, So-Hyu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targeted to understand the giving of time and money among citizens in Seoul. It explores predictors of different combinations of giving behaviors: only volunteering, only donating, doing both, and neither. In exploring predictors, it also considers the effects of intensity in giving with differential measurement of general participation and regular participatio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in 2008 and 2010 and employs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selection of citizens' demographic factors, pro-social attitude factor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these four type of giving behaviors.

The findings show that previous giving experiences(+) and religious activiti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both selective and combined giving behavior. Gender(woman), income(+), educa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giving behaviors(only donating and doing both) related with donation. In the case of employment state, unemploymen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volunteering while employmen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donating. Finally, happiness(+)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intensive giving such as regular giving rather than general giving. This analysis has made a start in a new area of inquiry attempting to explain different giving behaviors with broadening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n giving behaviors. Moreover, it raises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strategic practice for resource mobilization of NPOs.

Key words: selective giving behavior, combined giving behavior, giving regularity, volunteering, donation

[논문 접수일 : 12. 02. 16, 심사일 : 12. 03. 07, 게재 확정일 : 12. 03. 30]